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교육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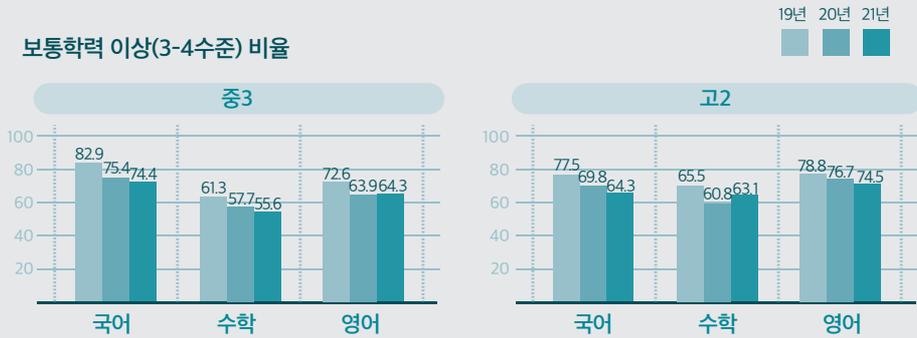
202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미국 교육부에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NAEP, 500점 만점) 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은 전국 1만 개 학교에서,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읽기 과목에 대해 시행되었다. 원래 이 시험은 2년에 1번씩 실시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연기되면서 3년 만에 치러졌다. 2022년 10월 24일,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학의 경우, 4학년의 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5점이 하락하면서 2005년 이후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의 수학 점수는 8점이 떨어져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1969년 이 시험이 시작된 뒤, 점수의 낙폭이 가장 컸다. 특히 8학년 학생 10명 가운데 약 4명이 기초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의 많은 교육가가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읽기의 경우, 4학년과 8학년 모두 3점씩 하락했다. 다국적 비영리 통신사인 AP통신은 이 결과가 학생들의 읽기 수준이 30년 전인 1992년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센터장도 “점수가 1-2점만 떨어져도 우리는 학력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말한다. 8점 하락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듯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 교육에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진단하는 기초학력 평가와 달리, 국가에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다. 2021년에 교육부에서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만 2,297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중3·고2 표집 학생 22,297명(448개교) 대상 조사(2021.09.14.)
- 성취 수준 구분: 4(우수) > 3(보통) > 2(기초) > 1(기초학력 미달)

보통학력 이상(3-4수준) 비율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결과를 보면, 중·고교생의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국어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학력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4.3%로 2020년보다 5.5%포인트 떨어졌다.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 2학년은 모든 교과에서 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국어는 7.1%, 수학은 14.2%, 영어는 9.8%의 학생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1년 사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1.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과목별로 적게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6%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모든 학년에서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린다. 한국 교육에서도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교회의 현주소

2020년 1월,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비단 교육 분야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교회도 다음과 같이 큰 변화를 경험했다.

첫째, 교회의 외형이 많이 축소됐다. 2022년 10월, 한 일간지는 각 교단의 상황을 기사화했다. 예장통합 측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인 수가 235만 8,914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만 4,005명이 줄어든 수이다. 그런데 이 교단의 통계위원회는 교인 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8년에는 교인 수 200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아울러 2030년에는 185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예장통합 측의 교인 수가 299만 4,000명대였음을 감안하면, 20년도 안 돼 무려 100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이다. 예장합동 측도 비슷하다. 기사가 발표될 당시, 예장합동 측의 교인 수는 229만 2,745명이었다. 전년(238만 2,804명)에 비해 무려 9만여 명이 나 감소한 수이다. 이 교단의 경우 지난해에만 42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또한 이 일간지는 국내 다른 교단의 상황도 전했다. 감리회는 124만 6,000명에서 120만 3,000명으로 감소했고, 고신은 40만 1,000명에서 38만 8,000명으로, 기장은 21만 5,000명에서 20만 8,000명, 기성은 39만 9,000명에서 39만 명으로 모든 교단의 교인 수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그 진행 속도가 더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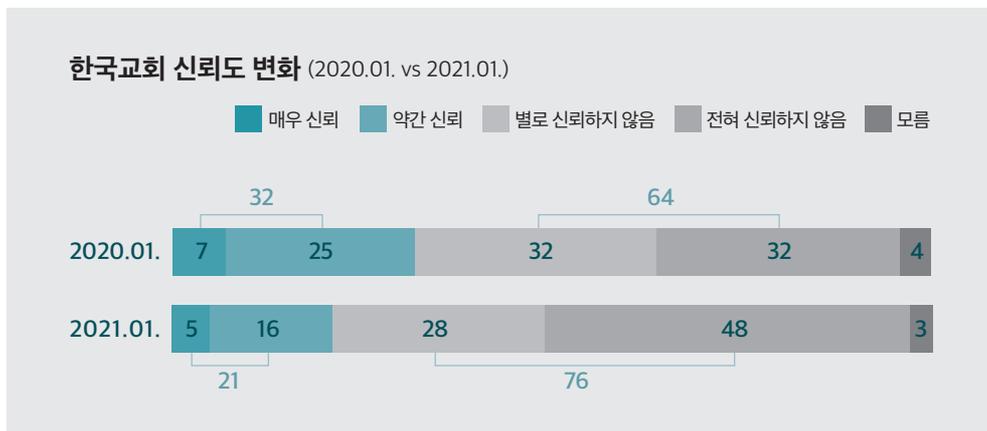
(출처: 장열, “미주 한인 대형교회 수십 곳 사라진 것과 같다”, LA중앙일보, 2022.10.10, <https://news.koreadaily.com/2022/10/10/life/religion/20221010180031685.html>)

둘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한국갤럽에서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해 물었다. 조사 항목 가운데 각 종교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도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인데 반해, 개신교는 6%밖에 되지 않는다. 호감도에서 최하위에 머문 것도 놀랍지만 다른 종교와의 호감도 차이는 충격적일 만큼 크다. 국내 개신교인의 수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믿는 종교	16%	17%	6%
종교 호감도	20%	6%	13%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2021'(2021.03.18.-04.07.)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도 2021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2020년 1월에 조사한 수치인 32%보다 무려 11%포인트나 급락한 21%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2명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셈이다.



*기윤실,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20.01.(일반 국민 1,0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1.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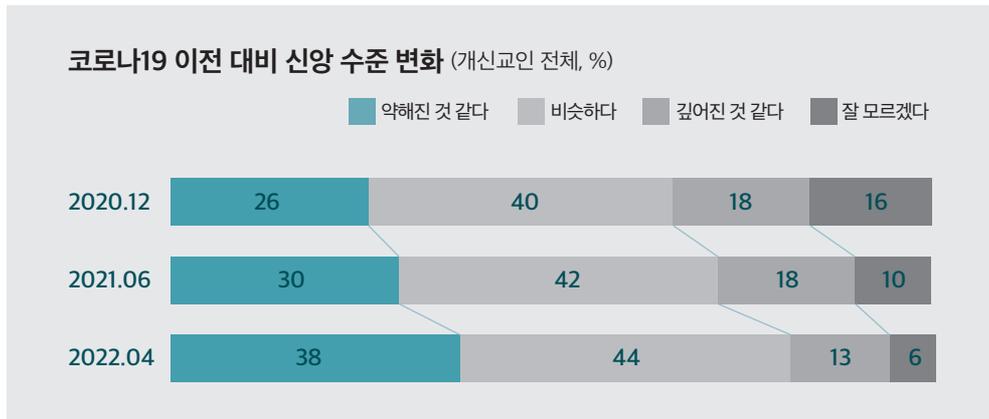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교회의 외형이 줄어든 것도 안타깝지만, 교회에 대해 비종교인들이 갖는 호감도나 신뢰도 수치의 변화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한다.



LIVING IN FAITH!

셋째, 성도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설문 조사 항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0년 12월에 자신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였다. 그런데 이 비율이 6개월 후인 2021년 6월에는 30%로, 2022년 4월에는 3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현장에서 모임이 어려워지고, 비대면으로 모임들이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보고서, 2020.12.(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6.17.-28.)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감소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장년 성도들의 감소는 다음세대의 감소로 이어졌다. 비슷한 연령대의 교육 부서들이 통합되었고, 학령전부터 청소년 부서까지 전체 교육 부서가 통합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왜 성도들의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일까?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로 모아질 만큼 상황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교회에 나타난 세 가지 변화는 모두 '믿음'과 관련 있다.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혹시 믿음이 삶의 형통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되짚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전통적으로 달신(月神)을 섬긴 것으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떠났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또한 그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떠났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익숙한 곳을 떠났다.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믿음으로 떠났다.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서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연약함도 보였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또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는 미련해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에 걸맞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 보여야 한다.

올여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갈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교사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도한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한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길 기대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